

우리나라에 國立公園制度가 導入되어 10餘年의 年輪을 쌓아오는 동안 12個의 國立公園과 10個의 道立公園이 誕生 하였고 幼年期를 벗어나 成熟期에 들었다.

국민의 自然探勝 利用 與件造成에 開發限界를 두어야 하는 制度意義를 벗어나 觀光開發에 치우치는 등 必要以上の 自然破損을 招來한 開發意慾의 과잉이 범한 모순도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꾸준히 發展해온 國立公園制度는 國土綜合開發 計劃上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成熟되어 가고 있다.

이는 國民의 與望에 報答하는 일면도 있겠으나 生産, 輸出-成長-繁榮이 國土를 파헤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自然의 合理的 利用을 위한 均衡維持前提의 開發을 권장하는 崇高로서 自然의 價値認識과 愛護心鼓吹를 위한 啓導로서 우리 國民과 社會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사막에서의 오아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알면서 公害의 危脅 속에 自然의 貴重함을 모른다면 남을 알고 자신을 모르는 격이니 所得 보다는 損失이 더 크지 않겠는가?

公園이 우리의 日常生活에 얼마나 有益한 存在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가보면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분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잠시나마 複雜하게 얽혀 머리를 무겁게만 하던 번뇌들이 自然과의 對話로 씻겨가기도 하고 解決의 실마리가 잡히기도 하는 自然이 주는 神秘는 美的 價値에서 보다 生活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生活과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는 唯一의 存在價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自然의 存在價値가 絶對的인 것과 다한가지로 自然의 活用價値 또한 삶과 그 보람을 위하여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하고싶은 말은 自然을 어떻게 利用해야 되고 開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利用의 行動規範을 提示하기 前에 自然의 貴重함을 배우고 깨달아 自然에 感謝하는 마음가짐으로 自然앞에

머리숙일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姿勢確立의 바탕이 이루어지면 政策立案者이건 一般國民이건 간에 合理的 利用과 保護保全 方案을 研究하게 될 것이며 研究熱이 높아짐에 따라 國土自然·錦繡江山이 保全되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國立公園制度가 自然의 保護·保全과 合理的 利用의 效率化 方案으로서 높이 評價되고 있으나 制度의 意義와 目的을 效果의 達成하기 위한 現在의 管理體系가 얼마만큼 實效를 거두고 있는가를 그 實相을 토대로 볼때 미흡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 國立公園管理

### 「自然所重함의 認識과

閔 仙 基

<國立公園協會·總務課長>

원래 國立公園의 管理는 自然의 保護保全과 利用增進의 2大 課題에 重點을 두고 構想되었고 體制가 樹立되었다. 이는 國立公園 指定趣旨와 目的에 따른 當然한 귀결로서 이에 따른 行政의 支援과 要員의 確保 및 教育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10餘年의 歷史를 가진 現在까지 겨우 行政要員만이 確保되었을 뿐이고 確保된 行政要員마저도 소의감속에 勤務意慾을 잃어가고 있다.

自然이란 방대한 地域에 管理事務所를 設置하고 自然管理가 아닌 事務管理로 전락된 現實態는 制度施行上의 큰 모순이 아닐수 없다.

國立公園指定 以後 自然이 保護되고 있다는 반가운 現實은 管理가 잘되어서가 아니라 一般國民의 理解와 깨달음이 앞섰다는 點을 政策當局이 考慮하여 再考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중 新聞紙上에 發表되는 登山公害와 오염, 自然破壞의 部分的 問題點마저도 管理의 行政力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制度를 施行過程에서 그르치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國民들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하기 위한 管理事務所란 비웃음을 받기 以前에 서둘러 改善해야 할 重要한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解決方法으로는 行政의 支援對策의 樹立과 要員의 確保와 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對策 樹立으로 民間團體의 協調體系確立을 積極推進할 것을 提言한다

知로  
管理  
白鹿  
아저  
상실  
  
他  
은  
集  
는  
特  
는  
案  
  
項  
場  
增  
年